

성인초기 개인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자아분화가 혼전동거 의식에 미치는 영향*

양 수 진¹⁾

서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 춘 희²⁾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성인초기 개인의 혼전동거 의식, 특히 혼전동거 의식의 개방성에 대해 개인적, 가족적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혼전동거 의식에서의 차이와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에 미치는 가족기능과 자아분화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북 지역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한 결과 첫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은 성별, 연애경험, 혼전 성관계 경험 유무, 지인의 혼전동거 여부, 독립기간, 출신고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 대학생보다는 남자대학생이 그리고 연애경험과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지인 중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가족과 독립해서 생활한 기간이 긴 경우 그리고 남녀공학이나 남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혼전동거 의식이 유의미하게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은 성별과 혼전 성관계 경험 유무였으며 가족기능 가운데는 양육방식이, 자아분화 중에서는 정서적 단절로 나타났다. 즉 청년초기 성인인 대학생이 남학생인 경우,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민주적 양육방식을 받은 경우 그리고 가족과의 정서적 단절이 높을수록 즉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혼전동거 의식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성인초기 성인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에는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성인초기 개인, 대학생, 가족기능, 자아분화, 혼전동거 의식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1) 서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2) 교신저자 :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E-mail : chlim@kunsan.ac.kr)

I. 서론

한국 사회는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혼전 성과 동거와 같은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와 관련된 인식과 행동에서도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사람들의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개방적으로 변하였으며, 초혼 연령은 높아졌지만 첫 성경험 연령은 낮아졌으며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혼전동거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과거에 비해 허용적인 경향이 많아졌다(임인숙, 2009). ‘동거(同居)’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 또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부부 관계를 가지는 것’(민중서림, 2010)이다. 즉, 동거란 성관계를 맺는 남녀 혹은 동성의 성인이 혼인 없이 주거와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거는 행동의 측면과 의식의 측면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명확한 의미구분을 하지 않으며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많은 경우 동거행동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동거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존적이고 불안정한 개인이 안정감을 얻기 위한 동거(linus blanket), 부모의 가치관과 영향에서 해방되는 의미로서의 동거(emancipation), 결혼의 책임 없이 성적 관계나 가사부담에서 편리를 추구하는 동거(convenience), 결혼을 위한 실험으로서의 동거(testing)로 분류할 수 있다(Olson & DeFrain, 2006). 또 다른 동거의 구분으로는 결혼을 위한 실험, 결혼과정에서의 단계, 독신생활의 대안, 결혼생활의 대안, 결혼에는 관심이 없는 동거 등으로 구분된다

(Heuveline & Timberlake, 2004). 한편 동거경험이 있는 2-30대 여성들을 연구한 김지영(2005)은 동거진입과정과 동거와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라 동거를 연애과정으로서의 동거, 결혼을 고려하게 되는 동거, 비혼동거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동거를 한때 이성간 연인들이 결혼으로 거쳐 가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았지만, 오늘날은 동거를 공식적인 하나의 연합(a formal union)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한다(Manning, 2001; Seltzer, 2000; Smock, 2000).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동거는 더 이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며 비교적 수용되는 가족의 형태가 되고 있으나 사실상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더 흔하다고 한다(Smock, Casper, Wyse, 2008).

결혼과 비슷하게 동거는 종종 친밀한 관계를 포함하며, 사는 공간을 공유하고 행동하는 패턴을 정립한다(Brown & Brooth, 1996). 이처럼 어떤 면에서는 결혼과 매우 흡사한 상태이지만, 결혼관계에 비해 불확실한 관계이다(Bumpass & Sweet, 1991). 약 절반 정도의 동거자들의 동거 관계는 2년 안에 결혼으로든 헤어지는 것으로든 끝이 난다(Brown & Brooth, 1996). 미국에서 동거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의 증가와 결혼과 이혼의 의미변화, 남녀의 결혼 지연, 여성이 결혼에서 덜 의존적으로 된 점, 동거가 인생단계에서 하나의 단계로 정상화되어가는 점 등을 꼽는다(Smock et al., 2008). 이것은 우리 사회의 상황에도 일부분 적용되는데 대학생들의 경우 결혼과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와 동거와 관련된 서구화된 사고방식의 영향, 동거를 긍정적

으로 묘사하는 대중매체의 영향,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대학생들의 이성교제와 혼전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의 증가 등으로 혼전동거가 증가하고 있다.

먼저, 결혼과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로 혼전동거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가 많아졌다. 통계청(2011)이 발표한 '201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의 약 60%가 혼전동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혼전동거행동의 증가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동거는 미혼자뿐만 아니라 이혼자들에게도 법적인 재혼이 아닌 실재혼으로서 선호될 수 있는데 이는 결혼으로 인한 책임감과 부담감, 인척관계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조사에 의하면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정식 결혼을 하기보다는 동거를 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혼을 한 사람들이 재혼보다 동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0). 그 이유로는 어려웠던 결혼생활이 반복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결혼이 주는 제도적 법적 구속감 없이 자유로운 성(性)생활을 즐기려하는 동기를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혼인신고 지연 등을 포함하여 혼전동거가 많이 증가하였다(이연주, 2008).

혼전동거에 대해서는 국외에서도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가령, 혼전동거가 보편화된 프랑스에서는 90%의 젊은이가 혼전동거에 찬성하고, 결혼 전에 1~2년의 동거기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1999년에는 계약 동거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동거 부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모든 동거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시민연대협약'(PACS: Pacte Civil de Solidarite) -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의 자연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채택하여 동거부부들은 각종 법률이나 사회보장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하였다(최재경, 2005).

미국의 경우도 결혼 전 동거는 하나의 규범처럼 되어가고 있으며 동거 후의 결혼이 초혼의 경우 60%에서 75%에 이르며 재혼의 경우는 80%-85%에 이르고 있다(U. S. Bureau of the Census, 2003). 중국의 경우 혼전동거는 시험삼아 결혼한다는 의미의 스혼(試婚)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광둥(廣東)성 성학회(性學會)가 전국 24개성의 2천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진병태, 2007.9.3), 대학생들은 결혼 전 동거에 대해 28.4%가 '찬성', 57.6%는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한 반면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학생은 13.5%에 불과해 결혼 전 동거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혼전동거에 대한 개방적인 의식의 확산에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수년 사이에 동거를 소재로 한 방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기존의 사회적 윤리와 통념을 깨는 '혼전동거'가 자연스럽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경향은 시대별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며(권미경, 지영숙, 2005) 동시에 혼전동거를 허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확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대학생들의 이성교제와 혼전 성에 대한 허용적

인 태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혼전동거가 증가하는데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동거를 하는 이유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이성 관계에 대한 관심과 성적 호기심과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는 성인기 초기 특성상 일종의 모험으로 동거를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책임은 적고 이성 관계나 혼전 성에 대해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대학의 분위기로 동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은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면서 부모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주거를 선택하는 주거상황과 이성과 함께 사는 즐거움과 편의성 때문에 동거를 쉽게 결정할 수도 있다.

대학생들이 동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나타났으며(우남식, 2005; 허은주, 2004), 그 외에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거나 혼자 있기 싫어서 등의 이유가 있었다(허은주, 2004). 대학생들의 경우 동거가 갖는 경제적인 이점과 데이트하는 과정에서의 편리성 역시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대학생 동거의 증가는 정확한 통계결과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주목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전국 200여개 대학 남녀 대학생 이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도(김도형, 2010.10.12)에 의하면 ‘결혼이나 사랑이 전제된다면 혼전동거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72.8%로, ‘절대 혼전동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19.3%)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천여 명의 대학생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보도(안상준, 2012.5.11.)에 의하면

남학생의 50.8%가 여학생의 19%가 성경험이 있으며 혼전 동거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0.6%가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태조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제로 동거하거나 동거경험이 있는 대학생에 대한 통계조사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상적으로 대학생의 사랑과 혼전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결혼의 지연,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혼전동거 행동이 증가하고 의식도 개방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대학시절의 이성과의 동거는 그들이 성인기 초기의 발달 단계에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 시기의 이성과의 교제 경험 및 관계는 이후 결혼 생활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Lewis & Spanier, 1979). 특히, 동거 경험은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며 이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 태도를 갖게 한다(Axinn & Barber, 1997). 또한 동거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커플은 많지 않아서 70%가 동거 그 자체로 끝나며 동거기간은 평균적으로 1.3년 동안 지속된다(Bumpass & Sweet, 1991). 동거 후 결혼을 한 경우에도 동거를 하지 않고 결혼한 부부에 비해 이혼율이 절반 이상 높다(Clarkberg, Stolzenberg, & Waite, 1995). 많은 연구자들은 동거가 결혼준비의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며 결혼 전 동거했던 부부들의 이혼 위험이 더 높다고 한다(Popenoe & Whitehead, 2004).

혼전동거가 이후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는 결혼은 헌신에 대한 강한 윤리가 있는 반

면 동거관계는 성격상 헌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동거커플은 자신의 개인적인 자율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일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관계를 끝내려고 한다. 동거기간이 길수록 동거커플의 헌신도는 더 낮아지기 쉬우므로 이와 같이 자율성은 높고 헌신은 낮아지는 관계패턴이 형성되면 동거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한다(Popenoe & Whitehead, 2004). 동거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의 경우(김지영, 2005), 자신들이 동거를 선택하였어도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과 외부의 비난에 따른 상처를 받으며, 동거사실로 인해 인간관계가 축소되며 남성과 여성이 동거를 해도 여성이 더 많은 성적인 비난을 받는 이중기준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동거는 여성 개개인에게 모험이자 저항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그런데 대학생과 같은 성인기 초기의 혼전 동거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Horwitz와 White(1998)는 동거로 인한 문제로 정체감 상실, 다른 친구들과의 활동의 제약, 과도한 의존성 등의 정서적 문제와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우울감 증가와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들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생의 경우 이러한 문제 외에도 동거사실을 숨겨야 하는 데서 오는 불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혼전 성으로 인한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피임문제와 같은 성적인 문제가 있다. 이 외에도 동거를 하면서도 각자 사생활을 유지하고 가사분담을 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문제가 있다. 혼전동거를 하는 대학생들이라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동시에 학업과 취업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점에서 혼전동거에 대한 부담

이 다소 많을 수 있다.

혼전동거에 관한 연구들은 의식의 변화와 행동의 차원을 포함하여 혼전동거를 언급하고 있으며 문제적 시각에서 혼전동거에 대한 의식 조사를 다루고 있다(고경애, 2006; 장미, 2005). 그러나 미혼인 성인의 혼전동거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개인심리적 요인과 가족관계적인 측면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혼전동거는 개인적인 가치관과 선택의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 부모나 가족과의 관계가 혼전동거와 관련된 가치관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청년기 후기와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있어 가족은 심리적 안녕 및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 그리고 혼전동거와 같은 가족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자녀의 동거는 부모의 결혼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Amato와 Booth(1997)는 안정된 가족에서 성장한 성인자녀의 경우가 동거율이 가장 낮았으며 이혼한 부모의 성인자녀들의 동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성관계와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에 매개하는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손병덕, 2009) 가족기능이 혼전동거를 선택하는데 있어 관련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해란, 2010). 한편 청년기 미혼 남녀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미혼여성의 경우 부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성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 1995).

한국 사회에서 성인기는 법적인 권한과 교

육단계의 측면에서 대체로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성인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성인초기는 개인으로서 자아정체성을 추구하며, 출생가족으로 부터의 독립을 원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특징을 갖는 시기이다. 성인으로서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에 따라 기능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바로 Bowen이 말한 자아분화의 특성과 동일한 의미라 할 수 있다. 자아분화는 개인내적인 특성이지만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가족치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이성간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있어 라포 형성과 상호의존의 중간단계로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정현숙, 1998). 자아분화는 개인의 성장기에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성장 후 자신의 생활이나 대인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이신숙, 차용은, 2000).

이처럼 자아분화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혼전동거에 있어서 자아분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가족기능은 가족 관계 속에서 체계의 완전함을 유지하고 가족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체계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가족의 행위 또는 역동성이라 할 수 있다(도현심, 박선영, 1998). 체계로서의 가족은 안으로는 여러 하위체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체계내부의 가족구성원 각자는 하나의 하위체계가 되고,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과 같은 가족관계가 또 다른 하위체계를 이룬다. 이러한 하위체계들은 매우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지며, 밖으로는 보다 큰 사회의 상위체계들과 연결되어 있다. 가족은 일련의 발달단계를 거치는 사회적 체계로서 가족의 모든 기능은 가족의 하위체계들 간의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유영주, 최희진, 2003).

Olson과 DeFrain(2006)에 의하면 기능적인 가족은 가족의 응집력과 융통성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이러한 것을 촉진하는 것이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라 한다. 가족기능은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박유화, 2001)이나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신념 및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uadalupe, 2009). 그러나 가족기능이 역기능적인 가족인 경우 청소년의 성 허용성(최미혜, 김경희, 권혜진, 김수강, 2005)이나 청소년의 부적응 증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uille, 2000).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혼전 동거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Clarkberg 등(1995)에 의하면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연구(김미현, 2009)에서는 부모가 비지속적인 결혼상태(이혼, 사별, 별거 등)인 경우 대학생의 동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연구에서도 이혼한 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이 동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erlin & Chase-Lansdale, 1995; Kamp Dush, Cohan, & Amato, 2003; Teachman, 2003). 또 다른 연구(손병덕, 2009)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성관계와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에 매개하는 변인으로서의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내적, 외적 기능이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임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청년기후기와 성인초기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 대학생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는 대학생 자녀의 정서나 행동, 가치관의 발달에 원형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으며 혼전동거와 같은 가족 관련 가치관에는 개인이 속한 가족에서의 기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학생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심리적 독립을 원하는 개별화 과정이 현저히 나타나는 즉, 자아분화를 추구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 시기에 있다.

자아분화는 Bowen의 가족치료 이론의 중심 개념으로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체화된 정도를 의미한다(제석봉, 1989). Bowen에 의하면 가족 내에서 대인간 거리를 유지하려는 가족체계의 상호작용적 역동성은 융합과 분화의 양 측면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융합은 환경과 관계에서의 긴장과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나친 가족과의 밀착, 의존성 등을 의미하며 분화는 자율성과 개별성을 지향하는 것을 지칭한다. 요컨대 Bowen은 자아분화를 개인이 가족과 적절하게 친밀감과 분리감을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백경하, 2004).

Bowen의 자아분화과정은 개인내적 측면과 대인 관계적 측면으로 구분되는데(Kerr & Bowen, 1988) 먼저, 개인내적인 측면에서 자아분화는 지적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말한다. 둘째,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자아분화는 타인과 자기와의 분리 정도를 말한다. 자아분화의 구성요소에는 인지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등 여러 차원이 있다(Kerr & Bowen, 1988). 이 가운데 중심적인 다섯 가지 차원을 살펴볼 때, 첫째, 인지 대 정서적 기능은 한 개인의 자아분화정도가 인지와 정서체계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로서 감정과 이성적 사고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아통합은 사회적 압력과 자극에 쉽게 변하는 위장된 가아(假我)를 극복하고 진아(眞我)를 형성하고자 하는 정도를 말하며, 셋째, 가족투사는 핵가족 정서체계에서 부부간의 갈등과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가 자녀에게 투사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서적 단절은 출생이후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온 충족되지 못하고 미해결된 감정을 뜻하며, 다섯째, 가족퇴행은 인지, 정서 체계가 미분화되고 융합의 경향이 심하여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비합리적인 문제해결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정도로 정의된다. 자아분화 개념 중 특히 정서적 단절은 부모와 융합된 자녀가 원가족과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불안과 긴장을 줄이기 위해 물리적·정서적 접촉을 회피하여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가족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독립성을 과장하는 것이다(최규련, 2008).

Bowen에 의하면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서적 충동에 저항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 즉, 자아분화가 잘된 사람은 객관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므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주적인 정체감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융합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불안한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의 일관된 신념에 따른 자주적,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질적인 타인의 견해에 쉽게 동조하며,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공격이나 비판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삶을 살게 된다.

자아분화는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건강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았으며(박유화, 2001; 오청미, 최연실, 2006). 젊은 성인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분화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Thorngren, Smith, 2001). 자아분화와 관련하여 세대 간 융합에 초점을 둔 연구(Klever, 2003)에서는 세대 간 융합이 심할수록 핵가족의 건강한 기능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아분화는 인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대학생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심리적 안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천숙, 이희자, 1997; Manying, 2010). 또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였으며,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대체적으로 대처기제가 발달되어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하지만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대학생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제석봉, 1989; 이수진, 김명자, 2000).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문은미, 최명선, 2008)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가족과의 정서적 단절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배옥현, 홍상옥, 2008)에서도 자아분화가 높은 집단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적 대처자세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자아분화가 낮은 집단은 부정적 관점에서 정서 중심의 소극적 대처자세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동거는 혼전동거와 함께 선행연구에서 동거의식과 행동의 측면이 명확히 구분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생의 혼전동거 또한 같은 경향을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혼전동거는 가족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가족기능은 자아분화와 상호관련이 있고 자아분화는 성인초기에 있는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이나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가족기능과 자아분화가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경우는 없었다. 동거에 대한 의식이 곧 동거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실행될 수 있는 잠재적인 바탕으로서 의식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혼전동거 의식의 중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에 초점을 두어 가족기능과 자아분화가 혼전동거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혼전동거 의식은 개인적 특성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 둘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에 미치는 가족기능과 자아분화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를 통하여 성인기 초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혼전동거 의식을 개인내적, 가족관계적 측면에서의 관련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혼전동거 의식이 개방화되는 것에 대해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의 측면에서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북 소재 K대학교 재학생으로 201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설문 조사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200명 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는 부실 기재된 30부를 제외하고 총 370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개인적·가족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370명 중 남학생 191명(51.6%), 여학생 179명(48.4%)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29세이었다. 출생 순위로는 장남 혹은 장녀가 183명(49.5%)가 가장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출신 고교는 남녀공학 115명(31.1%), 남학교 111명(30.0%), 여학교 144명(38.9%)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193명(52.2%)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님의 결혼 생활 상태

는 두 분이 함께 사신다가 311명(84.1%)으로 가장 많은 응답 빈도를 보여 주고 있었으며 부모님의 사이 정도는 응답자의 86.2%가 부모님의 사이를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거주형태로는 자취 164명(44.3%)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가 118명(31.9%), 으로는 다음을 차지했다. 집에서 독립하게 된 이유로는 집과 학교의 거리상 문제로 인하여가 196명(53.0%)으로 가장 많았고 독립 기간으로는 1개월~1년 미만이 93명(25.1%), 다음으로 2년 이상 79명(21.4%)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보통이다가 245명(66.2%)으로 가장 많은 응답 빈도를 보여주었다.

조사대상자의 혼전동거 경험에 따른 특성

대학생의 동거 경험 유무에 대한 조사로서 동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2명을 대상으로 동거 기간과 동거 목적, 동거를 끝내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91.4%는 혼전동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전동거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현재 동거중이다’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1명(3.0%), ‘과거에 동거 한 적이 있지만 현재 하고 있지 않다’ 19명(5.1%), ‘과거에 동거 한 적이 있으며, 현재도 동거 중이다.’ 2명(0.5%)로 나타났다. 동거 기간으로는 전체적으로 6개월 미만이 22명으로 대부분이었다. 동거 목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단지 같이 있고 싶어서’가 24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 전 상대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4명,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2명, ‘자유롭게 스킨십을 하고

표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가족적 특성 (N=370)

	구분	N(명)	백분율(%)
성별	남	191	51.6
	여	179	48.4
학년	1학년	95	25.7
	2학년	91	24.6
	3학년	91	24.6
	4학년	93	25.1
출신고교	남녀공학	115	31.1
	남학교	111	30.0
	여학교	144	38.9
종교	기독교	115	31.1
	불교	31	8.4
	천주교	24	6.5
	기타	7	1.9
	없음	193	52.2
부모님 결혼생활상태	두 분이 함께 사신다.	311	84.1
	별거 중이시다.	11	3.0
	한분이 사별하셨다.	15	4.1
	이혼하셨다.	21	5.7
	재혼 하셨다.	6	1.6
	기타	6	1.6
거주지	부모와 함께 거주	118	31.9
	친인척 집에서 거주	10	2.7
	기숙사	67	18.1
	자취	164	44.3
	기타	11	3.0
독립 이유	성인이므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건 옳지 않아서	17	4.6
	집과 학교의 거리상 문제로 인하여	196	53.0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32	8.6
	기타	7	1.9
	해당사항 없음	118	31.9
독립 기간	0~1개월 미만	30	8.1
	1개월 ~ 1년 미만	93	25.1
	1년 이상 ~ 2년 미만	50	13.5
	2년 이상	79	21.4
	해당사항 없음	118	31.9
연애경험유무	있다	288	77.83
	없다	82	22.17
연애기간	1개월 미만	24	8.33
	1개월-6개월 미만	61	21.18
	6개월-1년 미만	97	33.68
	1년-2년 미만	79	27.43
	2년 이상	27	9.37

부의 학력	초등학교 졸업	23	6.2
	중졸	38	10.3
	고졸	207	55.9
	대졸	82	22.2
	대학원졸	20	5.4
부의 직업	전문직	40	10.8
	관리직	25	6.8
	사무직	41	11.1
	판매직	30	8.1
	생산노무직	89	24.1
	주부	143	38.6
	학생	2	0.5
가정의 경제적 수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31	8.4
	보통이다	245	66.2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82	22.2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	12	3.2
계		370	100.0

표 2. 혼전동거 유경험자의 특성 (N=370)

구분		N(명)	백분율(%)
혼전동거 경험	현재 동거중이다.	11	3.0
	과거에 동거 한 적이 있지만 현재 하고 있지 않다.	19	5.1
	과거에 동거 한 적이 있으며, 현재도 동거 중이다.	2	0.5
	동거한 적이 없다.	338	91.4
동거 기간	1개월~2개월	10	2.7
	3개월~4개월	3	0.8
	5개월~6개월	9	2.4
	7개월~1년	5	1.4
	1년 이상	5	1.4
	해당사항 없음	338	91.4
동거 이유	결혼 전에 상대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4	1.1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2	0.5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스킨십을 하고 싶어서	2	0.5
	사랑하는 사람과 단지 같이 있고 싶어서	24	6.5
	해당사항 없음	338	91.4
동거를 끝낸 이유	학업에 방해가 돼서	5	1.4
	사랑이 식어서	5	1.4
	사회적 관습(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	0.3
	부모님 혹은 주위 사람들의 반대로	3	0.8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서	7	1.9
	해당사항 없음	349	94.3
계		370	100.0

싶어서' 2명 등으로 나타났다. 동거를 끝내게 된 이유로는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서' 7명, '학업에 방해가 돼서', '사랑이 식어서'가 각각 5명이었으며, '주위사람들의 반대'가 3명, '사회적 관습 때문에' 1명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가족기능 척도, 자아분화 척도, 혼전동거 의식 척도이며, 각 척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기능

대학생들이 지각한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Noller와 Seth-Smith, Bouma, Schweitzer (1992)의 ICPS 가족기능척도(ICPS Family Functioning Scales, 1992)를 김유숙, 전영주 및 김수연(2003)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래 ICPS(가족기능척도)는 가족 간의 친밀감(Intimacy), 갈등(Conflict), 양육방식(Parenting style)의 세 가지 하위영역에 있어서의 가족 내 상호작용의 패턴을 알아보는 도구로서, 친밀감 영역 12문항, 갈등 영역 10문항, 양육방식 영역 8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4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의 결과 문항 간 상관성이 낮고 그 문항을 제거했을 때 전체 신뢰계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갈등영역 1문항과 양육방식 1문항을 제외하였으며 신뢰계수가 낮은 2문항을 제외한 28문항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친밀감 11문항, 갈등영역 10문항, 양육방식 7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친밀감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갈등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간에 갈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양육방식에 대한 평가는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그리고 점수가 낮을수록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가족기능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친밀감 영역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90 갈등영역에서는 .62 양육태도에서는 .77로 나타났으며 가족기능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76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분화 척도는 Bowen의 이론과 Kerr, Garfinkle, 그리고 Tidman의 척도를 바탕으로 제석봉(1989)이 개발한 Likert 평점 4점 척도로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차원으로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 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과 가족 퇴행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영역별 점수가 높을 경우 의미하는 바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인지적기능이 발달되지 못하고 정서적 기능이 크게 지배한다는 것이므로,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두 기능이 잘 분리되어 있으며 감정통제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아통합은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에서 정서적 압력을 받을 때도 자기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투사과정은 부부가 분화되지 못한 경우 부부간의 문제를 특정 자녀에게 투사한다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투사가 적게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자란 것이

다. 정서적 단절요인은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이 가정 내에서 정서적으로 단절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개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은 적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가족퇴행 요인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건설적 방법보다 퇴행적 행동을 나타낸다는 개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퇴행정도가 낮은 가정에서 자란 것이다. 자아분화 질문지의 신뢰도는 하위영역별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Cronbach's α 계수가 .65, 자기통합은 .66, 가족투사과정은 .84로 정서적 단절은 .72로 가족퇴행은 .83으로 나타났으며 자아분화를 측정하는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혼전동거 의식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초기에 있는 대학생의 혼전동거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혼전동거 의식 척도 문항을 제작하였다. 여기서 혼전동거 의식은 대학생 자신이 혼전동거에 대한 허용성과 개방성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혼전동거 의식의 척도는 바로 이러한 혼전동거 의식의 개방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구성된 문항에 대하여는 가족학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두 명에게 내용검토를 의뢰하여 검토 받은 후 수정 보완하였다.

혼전동거 의식 문항은 총 20개 문항으로, 본 조사에 앞서 K대학교 40명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전체문항과 상관계수가 낮게 나온 문항을 제외하였으며 다시 전공자에

게 내용을 검토 받은 후 최종적으로 13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혼전동거에 대해 개방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개방성이 낮고 폐쇄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혼전동거 의식의 Cronbach의 신뢰도 계수(α)는 .8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북 K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 40명에게 혼전동거 의식 20문항, 가족기능 척도 30문항, 자아분화 36문항으로 구성된 총 10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배부되어 회수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이중적으로 해석되는 문항, 이해가 어려운 문항, 애매한 문항을 수정하였고, 신뢰도를 분석하여 문제가 되는 문항은 제거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가족기능, 자아분화, 혼전동거 의식의 차이는 t 검증과 F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 자아분화, 혼전동거 의식 간의 관련성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혼전동거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를 위한 이러한 통계적 분석은 모두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표 3. 혼전동거 의식의 질문지 내용

문항내용
혼전동거는 이성에 대해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 친구나 지인의 혼전동거 사실을 들으면 거부감이 든다.(*).
기회가 된다면 혼전동거는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다.
혼전동거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애인이 혼전동거를 원하면 나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결혼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혼전 동거경험이 있어도 이해할 수 있다.
결혼이 전제되면 혼전 성관계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혼전동거는 성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혼전동거는 결혼의 예행연습과 같은 것이다.
혼전동거는 결혼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혼전동거가 결혼제도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혼전동거는 이혼율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연예인의 혼전동거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
(*) 역채점 문항임

III. 연구결과

1. 대학생의 개인적, 가족적 특성에 따른 혼전동거 의식에서의 차이

조사대상자인 대학생들의 개인적·가족적 특성 가운데 특히 동거와 관련이 있는 개인적 특성인 연애행행 유무, 연애기간, 혼전 성관계 경험, 주변지인의 혼전동거 여부, 가족에서의 독립기간, 출신고교 유형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혼전동거 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과 F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의 연애행행, 성관계 경험, 지인 동거여부, 가족과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는 기간, 출신 고등학교의 종류에

따라 혼전동거 의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서 혼전동거 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6.62$, $p<.001$), 즉,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혼전동거 의식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행행 유무에서 연애행행이 있는 대학생이 연애행행이 없는 경우에 비해 혼전동거 의식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3.22$, $p<.001$). 혼전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혼전동거 의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t=8.14$, $p<.001$)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경우 혼전 성관계 경험이 없는 대학생에 비해 혼전동거 의식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애기간이 2년 이상인 대학

표 4. 개인적 특성에 따른 혼전동거 의식에서의 차이 검증 ($N=370$)

변인	구분	<i>N</i>	<i>M</i> (<i>SD</i>)	<i>t/F</i>	Scheffé
성별	남	191	41.33(9.65)	6.62***	
	여	179	35.04(8.51)		
연애경험 유무	연애경험 있다.	288	39.14(9.43)	3.22***	
	연애경험 없다.	82	35.30(9.82)		
연애기간	1개월 미만(a)	24	34.14(7.99)	3.78**	a<b
	1개월-6개월 미만(a)	61	35.65(8.78)		
	6개월-1년 미만(a)	97	36.77(9.13)		
	1년-2년 미만(a)	79	39.03(9.49)		
	2년 이상(b)	27	41.40(9.17)		
성관계경험	있다	148	42.89(9.05)	8.14***	
	없다	222	35.22(8.76)		
주변지인의 동거여부	있다	105	41.42(9.85)	4.01***	
	없다	265	37.05(9.28)		
가족에서의 독립기간	해당 없음(a)	118	36.61(9.08)	3.66**	a<b
	0~1개월 미만(a)	30	34.73(8.77)		
	1개월 이상~1년 미만(a)	90	38.95(9.85)		
	1년 이상~2년 미만(a)	50	39.02(10.12)		
	2년 이상(b)	79	40.91(9.54)		
출신고교	남녀공학/남학교 (a)	227	40.16(9.70)(9.93)	8.64***	a>b
	여학교(b)	114	35.37(8.54)		

* $p<.05$, ** $p<.01$, *** $p<.001$

생들이 2년 미만인 대학생들에 비해 혼전동거 의식이 더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3.78$, $p<.01$). 흥미롭게도 조사대상자의 주변 지인 중에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혼전동거 의식이 유의미하게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4.01$, $p<.001$). 또한 대학생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생활한 기간에 따라 혼전동거 의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66$, $p<.001$), Scheffé의 추후검증결

과 가족과 떨어져 독립생활을 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특히 독립생활 경험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독립생활을 한 경우에 비해 혼전동거에 대해 더 개방적인 의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출신고교를 살펴 본 결과, 남녀공학이나 남학교를 나온 대학생들이 여학교를 나온 대학생들에 비해 혼전동거에 대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11.75$, $p<.001$).

2.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 개인적 특성, 가족기능, 자아분화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인 대학생들의 혼전동거 의식과 독립변인들 즉, 개인적 특성 변인과 가족기능, 자아분화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로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은 연애경험($r=-.16, p<.01$), 성관계경험($r=-.39, p<.01$), 지인의 동거 여부($r=-.20, p<.01$), 독립기간($r=.14, p<.01$), 출신고교($r=-.24, p<.01$), 성별($r=-.33,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연애경험이 있을수록, 성관계 경험 이 있을 경우, 동거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 경우, 가족과 떨어져 생활을 한 기간이 길수록, 남녀공학이나 남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이 더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역의 설명도 가능하다. 즉,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이 개방적일수록 연애경험이 있고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으며 지인이 동거하고 있는 경우, 가족과 떨어져 독립생활을 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남녀공학이나 남 학교를 졸업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은 가족기능 요인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5.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기능, 자아분화와 혼전동거 의식간의 상관관계 ($N=370$)

		개인적 특성						가족기능					자아분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개 인 적 특 성	1. 혼전동거 의식	1															
	2. 연애경험	-.16**	1														
	3. 성관계경험	-.39**	.41**	1													
	4. 지인동거여부	-.20**	.19**	.21**	1												
	5. 독립기간	.14**	-.09	-.15**	-.17**	1											
	6. 출신고교	-.24**	-.05	.27**	.07	-.09	1										
	7. 성별	-.33**	-.03	.36**	.12*	-.07	.81**	1									
	8. 연애기간	.08	.47**	.21**	.14**	.08	.01	-.02	1								
가 족 기 능	9. 친밀감	.05	-.00	-.00	-.01	.01	-.02	-.02	-.04	1							
	10. 갈등	.05	-.06	-.02	-.02	.03	.01	-.00	.05	-.46**	1						
	11. 양육방식	.10	-.02	-.03	-.01	.09	-.05	-.05	-.07	.81**	-.36**	1					
자 아 분 화	12. 인지적·정서적 기능	-.12*	.03	.06	.08	-.04	.09	.08	-.05	.21**	-.32**	.12*	1				
	13. 자기통합	.12*	-.09	-.12*	-.116*	.06	-.15**	-.18**	.05	.15**	-.06	.19**	-.02	1			
	14. 가족투사과정	-.08	-.05	.06	.08	.12*	.12*	.18**	.04	.25**	-.35**	.17**	.37**	.12*	1		
	15. 정서적 단절	-.23**	-.02	.08	.06	-.02	.08	.07	.03	.46**	-.43**	.42**	.27**	.05	.40**	1	
	16. 가족퇴행	.03	-.00	-.02	.02	.05	-.01	-.02	.01	.76**	-.48**	.61**	.28**	.19**	.36**	.52**	1

* $p<.05$, ** $p<.01$, *** $p<.001$

주: 연애경험, 혼전성관계경험, 지인 동거여부, 출신고교, 성별은 가변수화함.

자아분화에서는 인지 대 정서적 기능($r=-.12$, $p<.05$), 자기통합($r=.12$, $p<.05$), 정서적 단절($r=-.23$, $p<.01$)이 혼전동거 의식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인 대학생의 자아분화에서 인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의 분화가 안 되고 정서적 기능의 지배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통합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가족과의 정서적 단절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혼전동거 의식이 더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이 개방적일수록 자아분화에서 인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의 분화가 안 되고 정서적 기능의 지배를 많이 받으며, 자기통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가족과의 정서적 단절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3.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기능, 자아분화가 혼전동거 의식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살펴본 결과 1.86으로 기준 값인 2에 근접해 있으며 변량증폭요인(VIF)는 1.00에서 2.57의 범위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서는 성별, 지인 동거여부, 출신고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한 독립 기간, 혼전 성 경험, 연애 경험을 그리고 가족기능 변인으로서는 친밀감, 갈등, 양육방식을 그리고 자아분화 변인으로

는 인지적·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 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델 I 은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 변인의 영향력을 본 것으로 모델 I 의 설명력은 21%로 나타났으며 혼전 성경험의 유무($\beta=-.26$, $p<.001$), 성별($\beta=-.25$, $p<.01$), 아는 사람 중에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즉 지인의 동거여부($\beta=-.11$, $p<.01$)가 혼전동거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혼전 성관계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남학생인 경우, 지인 중에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혼전동거 의식 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에서는 가족기능 변인을 추가하였으며 설명력은 22%로 나타나 1%의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이때 모델 I 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던 변수들은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에서는 자아분화 변인까지 투입하여 혼전동거 개방성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설명력은 6%가 증가하여 모델의 설명력은 28%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낸 변인은 정서적 단절($\beta=-.30$, $p<.001$), 성별($\beta=-.26$, $p<.01$), 혼전성관계 경험($\beta=-.24$, $p<.01$), 양육방식($\beta=.14$, $p<.05$) 순이었다. 즉, 대학생이 가족과 정서적 단절이 많을수록 즉,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그리고 남학생인 경우, 혼전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민주적 자녀양육방식을 받은 경우 혼전동거 의식이 더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에 가장 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

표 6.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가족기능, 자아분화가 혼전동거 의식의 개방성에 미치는 영향 ($N=370$)

독립변수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S.E	B	β	S.E	B	β	S.E
상수		45.11		1.22	35.24		5.76	46.47		7.50
개인적 특성	성별	-4.89	-.25**	1.61	-4.77	-.25**	1.61	-5.11	-.26**	1.59
	지인 동거여부	-2.25	-.11**	1.04	-2.25	-.10**	1.03	-1.96	-.09	1.02
	출신고교	.91	.05	1.59	.88	.04	1.59	1.41	.07	1.55
	독립기간	1.60	.07	1.12	1.36	.06	1.13	1.05	.04	1.12
	혼전성경험	-5.18	-.26***	1.11	-5.21	-.26***	1.11	-4.68	-.24**	1.08
	연애경험	-1.10	-.05	1.35	-.89	-.04	1.35	-1.22	-.05	1.32
가족 기능	친밀감				.10	.00	1.77	.23	.01	2.04
	갈등				1.92	.07	1.47	-.07	-.00	1.55
	양육방식				1.86	.09	1.70	2.82	.14*	1.68
자아 분화	인지적·정서적기능							-1.31	-.06	1.12
	자아통합							.06	.00	1.17
	가족투사과정							.79	.05	.91
	정서적 단절							-5.41	-.30***	1.05
	가족퇴행							1.74	.08	1.65
조정된 R^2			.21			.22		.28		
변화된 R^2						.01		.06		
F 값		13.92***			10.16***			9.19***		

* $p<.05$, ** $p<.01$, *** $p<.001$

주: 성별, 주변 지인의 동거여부, 출신고교, 독립기간, 혼전성관계유무, 연애경험은 가변수화함.

서적 단절이었으며, 다음이 성별, 혼전성경험, 양육방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혼전동거 의식에서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대학생은 성별, 연애경험, 혼전 성관계 경험, 지인의 혼전동거 여부, 가족으로부터 독립기간, 출

신 고등학교의 종류에 따라 혼전 동거 의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여자 대학생보다는 남자대학생이 그리고 연애경험이 있고,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으며, 지인 중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가족과 독립해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남녀공학이나 남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혼전 동거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혼전동거 의식의 개방성이 높게 나타난 점은 일반적으로 성의식이나 행동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개방적이며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에게 요구하는 성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기준이 더 관대한 이중기준이 적용되기 때문 일 것이다.

사실상 대학생의 혼전동거 인식에서의 개방 성의 정도는 단순한 사회적인 동조현상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적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혼전 성관계의 경험과 같은 극히 개인적이고 동거와 직결되는 문제에서의 경험은 동거 개방성에서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인 중에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 혼전동 거 의식에서 개방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아마도 가족보다 친구나 동료의 행동을 행동 의 준거로 삼으며 동조행동을 보이기 쉬운 청 년기 대학생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선행연구(박희성 등, 1995)에서도 미혼남 녀들은 동료의 성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남녀 모두 성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가족과 떨어져 독립 생활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가족의 일상 적인 관계와 관심 그리고 간섭에서 벗어나 혼 자 결정하고 생활하는 개인적 사고방식과 생 활방식이 확고해지게 될 것이다.

특히 남녀의 이성문제나 혼전동거와 같은 사생활의 영역에서는 가족에서 독립하여 생활 하거나 독립생활을 원하는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으로서는 의식상으로나마 보다 개방적 으로 사고하기 쉬울 것이다. 그런데 조사대상 자의 출신교교가 남녀공학이나 남학교인 경우 여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 비해 혼전동거 의 식이 더 개방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대생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 여성이나 결혼, 가족에 대해 보 다 보수적인 교육과 또래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회귀분석에서 성별이 혼전동거 의식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즉,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에 비해 혼전동거에 대해 보다 개 방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함께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사회화과정에서 이성교제나 혼전 동거의 경험이 여학생에 비해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사회의 암묵적인 허용적인 분위기 즉, 성행동 에 대한 남녀에 대한 이중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혼전 동거에 대 해서도 여학생에 비해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적게 느껴 보다 개방적인 인식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에 미치 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유 의한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자아분화 중 정서 적 단절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지인의 동거여 부, 혼전 성관계 경험, 가족의 민주적 양육방 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자아분화 중 정서적 단절이 대학 생의 혼전동거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가족과의 정서적 단절이 많은 대학생의 경 우 가족과의 접촉에서 오는 불안과 긴장을 피 하고 가족과 정서적 거리를 두려고 하며, 심 리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더 많으므로 가족보다는 심리적 갈등이나 정서적 관계의 부담이 적은 이성과의 관계에 더 몰입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부모의 결

혼만족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Clarkberg et al., 1995)나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성인기 자녀의 성관계와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는 변인이었다는 결과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최지영, 최연실, 2010)에서도 미혼남녀는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이 높을수록 이성과의 친밀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유추해볼 때, 부모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며 접촉을 피하는 즉, 정서적 단절이 많은 대학생의 경우 가족이 아닌 이성 관계에 대해 의식적으로 더 몰입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적어도 의식적인 면에서라도 혼전동거에 대해 더 허용적이며 개방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학생이 가족과의 정서적 단절이 많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문은미, 최명선, 2008)를 고려할 때 만일 가족과 정서적 단절과 자아정체감이 낮은 상태에서 혼전동거와 혼전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이 된다면 그로 인해 많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의 정서적 단절이 많다는 의미는 곧 자아분화의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인기 초기에 있는 대학생이 자아분화가 낮은 상태에서 혼전동거에 대해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이것이 혼전 성이나 혼전동거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러한 대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은 가족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자기주체적인 정체감이 없이 타인과 정서적으로 융합하려는 도피적이며 불안정한 의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인식에 혼전 성관계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혼전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혼전동거 의식이 더 개방적이라는 결과는 선행연구에서(김미현, 2009) 동거를 찬성하는 집단이 허용적인 성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소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혼전 성경험과 혼전동거 의식은 개인들의 경험적 측면에서 보면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으며 혼전 성경험과 혼전동거에 대해 점차 허용적으로 되어가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혼전의 성과 혼전동거가 배우자였던 경우 이후의 결혼생활 해체의 위험은 적었으며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성과 한 번 이상의 친밀한 혼전 성의 경험이 있었던 경우 결혼해체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하는 연구결과(Teachman, 2003)를 감안한다면 혼전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면 크게 문제시할 일은 아닐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결혼이나 약혼을 계획한 커플이라면 결혼 전 동거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이후의 결혼생활의 성공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kinner, Bahr, Crane, & Call, 2002; Kline, et al., 2004).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 최근 혼전의 성 행동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결혼의 과정이 아닌 일시적인 감정이나 편의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혼전 동거에 대해서도 보다 허용적이고 개방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다소 우려스러운 일일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인식에 부모의 양육방식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민주적인 양육방식을 받은 대학생일수록 혼전동거 의식이 개방적으로 나온 결과는 다소 의외

의 결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양육방식 속에는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존중한다는 점에서 혼전동거 의식이 개방적인 정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그리고 민주적인 양육방식을 받았다고 해서 혼전동거에 대해 반드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의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설문문의 내용에 있어서 민주적인 양육태도와 통제적인 양육태도의 정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허용적인 양육태도가 조사대상자인 대학생에게는 자칫 민주적인 양육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연구자도 이를 민주적인 양육태도로 파악하게 되는 왜곡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방식이 대학생 자녀의 혼전동거 의식 혹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은 남자 대학생이 여자대학생들에 비해 더 개방적으로 남녀 간의 차이를 보였다. 비록 의식과 행동의 차이가 있다 해도 혼전동거에 대해 개방적인 인식은 행동적으로도 개방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혼전 성에 대해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중기준과 성에 관한 한 남성에게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와 관련될 것이다. 혼전동거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남녀 구분 없이 대학생 모두에게 있어 동거가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가치관 판단과 당사자들 간의 합의,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하는 중요하고도 신중한 선택의 문제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의 일부는 혼전동거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분화 가운데 가족과의 정서적 단절이 많을수록,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이 더 개방적이라는 결과는 성인기 초기인 대학생의 혼전동거에 관한 의식에서 자아분화와 같은 심리적 기능과 가족과 관련된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동거의식이 개방적으로 되는 현상을 단순한 사회적 경향이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파악하기 보다는 대학생이 속한 가족관계적인 요인과 맥락과 개인 내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은 혼전 성관계 여부에 따라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밝혀졌으나 이는 의식의 개방성만을 본 것이므로 실제 동거 행동을 측정하여 가족기능 및 자아분화가 실제 혼전동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도 추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지방에 소재한 특정한 대학교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다르고 개인적·가족적 배경이 다른 성인기 초기의 대학생 집단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혼전동거 의식에 대한 질문지는 추후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강하여 제작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경애 (2006). 대학생들의 결혼관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조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미경, 지영숙 (2005). 동거(同居)에 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 8, 1-19.
- 김도형 (2010.10.12). 대학생 90% 혼전 성관계 '가능' 여대생들 성의식 개방 가속화.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01213541223621>
- 김미현 (2009). 대학생들의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숙, 전영주, 김수연 (2003). 가족평가핸드북. 학지사.
- 김지영 (2005). 동거를 통해 본 성별 관계의 지속과 변형: 20~30대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해란 (2010). 대학생들의 혼전동거 경험과 외로움 및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2(5), 509-518.
- 도현심, 박선영 (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 문은미, 최명선 (2008). 부모화경험과 자아분화가 청년기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5(2), 103-122.
- 민중서림 (2010). 엡센스 국어사전.
- 박유화 (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 적응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 (1995). 미혼남녀의 성행동실태와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33(6), 11-23.
- 배옥현, 홍상욱 (2008). 대학생의 자아분화 정도가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1), 27-34.
- 백경하 (2004). 원가족에서의 자아분화가 지도력 및 대인관계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병덕 (2009). 청소년의 성(性)가치관과 인구사회학적변인, 청소년-부모애착 그리고 신앙생활의 상관관계. 한국청소년복지학회지, 11(4), 301-322.
- 안상준 (2012.5.11). 남 대학생 2명 중 1명 성경험...10%는 낙태경험도. 메디칼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87798>.
- 오청미, 최연실 (2006).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수준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2), 199-223.
- 우남식 (2005). 한·미 대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및 성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영주, 최희진 (2003). 한국형 가족기능도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15-28.
- 이수진, 김명자 (2000). 대학생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 및 관계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85-98.
- 이신숙, 차용은 (2000). 성인자녀의 자아분화

- 수준과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이 노모와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46, 21-32.
- 이연주 (2008). 동거와 한국가족: 전국조사에서 나타난 동거자의 특성. *한국인구학회지*, 31(2) 77-100.
- 이천숙, 이희자 (1997). 가족체계유형 및 자아분화와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 *대한가정학회지*, 35(3), 101-113.
- 임인숙 (2009). 현대사회와 섹슈얼리티. 고려대학교 출판부.
- 장 미 (2005). 한국청소년이 혼전동거에 대한 고찰. *기독교철학연구*, 3, 171- 195.
- 정현숙 (1998). 결혼학개론. 상명대학교출판부.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진병태 (2007.9.3). 中 혼전동거 여대생 62.4% 후회.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foreign/asia/newsview?newsid=20070903170217759>.
- 최규련 (2008). 가족상담 및 치료. 공동체.
- 최미혜, 김경희, 권혜진, 김수강 (2005). 청소년의 성희롱성과 가족기능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아동간호학회지*, 11(1), 54-62.
- 최재경 (2005). 여자 서른 자신 있게 사랑하고 당당하게 결혼하라. 디자인하우스.
- 최지영, 최연실 (2010).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자아분화와 자기개방이 이성과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9(2), 227-244.
- 통계청 (2011). 2010 대한민국 미혼남녀 결혼통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0). 2009년도 사실혼 해소 상담 통계. 통계청 자료.
- 허은주 (2004).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 변인과 성태도 및 성지식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mato, P. R., & Booth, A. (1997). *A generation at risk: Growing up in an era of family upheaval*. Cambridge, MA: Havard.
- Axinn, W. G., & Barber, J. S. (1997). Living arrangements and family formation attitudes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595-611.
- Brown, S., & Brooth, A. (1996). Cohabitation versus marriage: A comparison of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668-678.
- Bumpass, L. L., & Sweet, J. A. (1991). The role of cohabitation in declining rates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913-927.
- Cherlin, A. J., & Chase-Lansdale, P. L. (1995). Parental divorce in childhood and demographic outcomes in young adulthood. *Demography*, 32, 299-318.
- Clarkberg, M., Stolzenberg, R. M., & Waite, L.J. (1995). Attitudes, values, and entrance into cohabitational versus marital unions. *Social Forces*, 74, 609-634.
- Guadalupe, H. (2009).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parenting beliefs and feelings among women who have a history of sexual abuse*. Unpublished master thesi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CA.

- Heuveline, P., & Timberlake, J. (2004). The role of cohabitation in family formation: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1214-1230.
- Horwitz, A. V., & White, H. R. (1998). The relationship of cohabitation and mental health: A study of a young adult coh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505-519.
- Johnson, P., Thorngren, J. M., & Smith, A. (2001). Parental divorce and family functioning: Effects on differentiation levels of young adults. *The Family Journal*, 9, 265-272.
- Kamp Dush, C. M., Cohan, C. L., & Amato, P. R.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cohabitation and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Change across cohor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539-549.
- Kerr, M. E., & Bowen, M. (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남순현 외(역). (원본발간일, 1988)
- Klever, P. (2003). Intergenerational fusion and nuclear family functioning.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5(4), 431-451.
- Kline, G. H., Stanley, S. M., Markman, H. J., Olmos-Gallo, P. A., St. Peters, M., Whitton, S. W., & Prado, L. (2004). Timing is everything: Pre-engagement cohabitation and increased risk for poor marital outcom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 311-318.
- Lewis, R., & Spanier, G.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Burr, R. Hill, F. Nye, & I.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Y: The Free Press.
- Manning, W. D. (2001). Childbearing in cohabiting unions: 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from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33(5), 217-223.
- Manying, H. (2010). *The relations among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elf-concept, and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
- Noller, P., Seth-Smith, M., Bouma, R., & Schweitzer, R. (1992). Parent and adolescent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A comparison of clinic and non-clinic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ce*, 15(1), 101-114.
- Olson, D. H., & DeFrain, J. (2006). *Marriages and families-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 McGraw-Hill.
- Popenoe, D., & Whitehead, B. D. (2004). *The state of our unions*. New Brunswick, NJ; National Marriage Project. Rutgers University.
- Quille, T. J. (2000).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functioning, parenting practices, and adolescent sympto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Miami, FL.
- Seltzer, J. A. (2000). Families formed outside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1247-1268.
- Skinner, K. B., Bahr, S. J., Crane, D.R., & Call, V. R. A. (2002). Cohabitation, marriage and remarriage. *Journal of Family Issues*, 23(1), 74-90.
- Smock, P. J. (2000). Cohabi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 appraisal of research themes,

- findings, and implic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1-20.
- Smock, P. J., Casper, M., & Wyse, J. (2008). Nonmarital cohabitation: Current knowledge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Population Studies Center Research Report*,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MI.
- Teachman, J. (2003). Premarital sex, premarital cohabitation, and the risk of subsequent marital dissolution among woma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444-455.
- U. S. Bureau of the Census. (2003).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1 차원고접수 : 2012. 10. 8.
수정원고접수 : 2012. 11. 20.
최종게재결정 : 2012. 12. 4.

A Study of the Effects of Family Function and the Self-differentiation of Individuals in Early Adulthood upon the Consciousness of Cohabitation before Marriage

Yang, Su Jin

Seocheon-gu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Lim, Choon Hee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that personal and familial factors have on the consciousness of cohabitation before marriage as it pertains to individuals in early adulthood amongst college student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questions posed by this study, 370 college students attending K University in Jeollabuk-do were surveyed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statistical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revealed that the college students were more permissive in their attitudes to the notion of cohabitation before marriage a). if they had previous experiences having fallen into love and had previous sexual experience, b). if they had the acquaintances who were living together before marriage, c). if they had previously lived away from family for a significant period, d). if they graduated from a coeducational or men's high schools. Additionally, college students were more permissive in their attitudes to the notion of cohabitation before marriage if they had already cut their emotional ties from their family in terms of self-differentiation and they experienced democratic child-rearing from their parents. Secondly, the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to cohabitation before marriage was explained by them having emotionally cut ties with their family, had previous experiences of sex, experienced democratic child-rearing from their parents. The question of gender also impacted upon attitudes. College students was more permissive in their attitudes to the notion of cohabitation before marriage if they were male students, and had experienced emotionally cutting ties with their parents, and if they had experienced sex before marriage, and if they were brought up in a democratic atmosphere. In short, it is possible to argue that the self-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 of college students had a meaningful and significant effect partially due to their permissiveness to cohabitation before marriag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family function, self-differentiation, consciousness of cohabitation before marriage, individuals in early adulthood, college students